

질병조기발견에 앞장서는 국민건강 지킴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건강증진센터를 찾다



문의전화 1644-8900 검진예약은 24시간 가능 홈페이지 www.kahpsu.or.kr

생애전환기, 국가 암 검진 등을 받기 위해 복적복적.....

따스한 봄기운이 감돌던 지난 주 월요일,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건강증진센터를 찾았다. 이른 오전시간이었음에도 센터 1층 로비에는 건강검진을 받기위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본지 기자가 서울서부지부 건강증진센터를 찾은 이유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고, 지역 주민을 위한 금연 클리닉, 독감예방접종,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해 협약기관과 연계한 재빠른 후속 치료 등(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곳에서 또 일을 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층에 내시경실 3개, 심전도실, 기초검사실 등 시설을 확장하고 4월 중순부터 PACS(의료영상정보전달저장시스템)를 가동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원스톱 검사서비스를 갖춘 것이다. 🌐

글/취재 현지현 (편집부)
사진 이원근 (SEOUL EYE)



INTERVIEW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이대일

본 기자는 궁금했다. 서울서부지부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떤 이유로 질병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아이템개발과 고객서비스, 장비 및 시설확충에 이토록 열심인지.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이대일 원장님을 만나 직접 그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다. (역시나 공익사업에 열심인 센터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넉넉한 인상이다.)

Q.3층 검사실을 확장해 모든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고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검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3월 새단장을 마쳤다. 내시경실을 1개에서 3개로 확장했고 권위 있는 내시경 담당 선생님도 한 분 더 모셔왔다. 심전도실도 추가로 설치하여 3층에서는 기초검사와 내시경, 심전도실을 갖

추고 내시경 검진에 대한 원스톱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에 비해 검사자가 두 배 이상 늘었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우리나라 사망 1위 질병인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게 되었다. 또 하나의 자랑은 내시경을 통한 위나 대장의 검사를 거쳐 혹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조직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작년 1월부터는 조직검사도 직접 시행하고 있어 정확한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검사에서부터 진단까지 더 편안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Q.건강검진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피력하신다면.

모든 질병 중에서도 특히 암은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조기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만이 100% 완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위·대장 등 소화기관 암환자 181명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연 1회 종합검진은 1년을 건강하게 만들며, 정기적인 종합검진은 평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한다. 우리 건강증진센터로 오시면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드릴 것이다. 🌐